

임기영 “몸 상태 굿… 즐기면서 선발 경쟁하겠다”



KIA 타이거즈
애리조나 캠프

김여울 기자 미국 투싼 캠프를 가다

지난해보다 평균자책점 낮추고
이닝도 더 늘리고 싶다
하던대로 무리하지 않고 준비

3년 만에 해외 캠프가 전개되면서 KIA 타이거즈 임기영이 날개를 달았다.

미국 애리조나 투싼에서 진행되고 있는 KIA 스프링캠프에서 사이드암 임기영은 좌완 듀오 김기훈, 윤영철과 5선발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하고 있다. ‘경합’에서 앞선 임기영은 쾌조의 컨디션으로 경쟁을 즐기고 있다.

임기영은 “피칭이나 지금까지 하는 걸 보면 근래 들어서 제일 좋다. 지금까지 몸 상태가 가장 좋다”고 이야기했다.

초반부터 많은 공을 던지면서 페이스를 끌어올리는 게 임기영의 캠프 루틴이었다. 하지만 지난 3년 코로나19로 국내에 발이 묶이면서 날씨 탓에 루틴을 지키지 못했다.

임기영은 “캠프오면 공을 많이 던지는 스타일인데 2020년 플로리다 캠프 이후로는 날씨가 추워서 그렇게 못했다. 또 작년에는 캠프 하자마자 옆구리가 찢어지기도 했다”며 “올해는 12월, 1월 준비를 잘했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 제대로 속도를 내고 있는 임기영에게 더 단단해진 팀 전력도 동기부여가 된다.

임기영은 “마운드가 정말 세졌다. 밀리면 이제 합평 가서 해야 된다. 밀리면 안 된다”며 “최근 2-3년 (정)해영, (장)현식, (전)상현이 등 애들이 자리를 잡았고, 좋은 선수들이 오니까 마운드도 더 좋아졌다. 보면 거의 다 필승조 느낌이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이다. 선발, 중간 모두 워낙 좋으니까 누가 나가도 다 막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지금 이렇게 멤버들 봐도 좋은데 현식도 재활하고 오면 더 좋아질 것이다. (박)준효정도 있고 2군에도 좋은 선수들이 많다”고 제창하는 KIA 마운드 상승세를 이야기했다.

/ wool@kwangju.co.kr

마음은 급해졌지만 급할 수록 돌아갈 생각이다. 늘 경쟁을 해왔던 만큼 자신의 페이스로 경쟁에 임하겠다는 각오다.

임기영은 “나는 항상 경쟁했다. 하던 대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여기서 ‘해야지 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다 탈 날 수도 있어서 하던 대로 크게 무리하지 않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일본도 가고 시범 경기 맞춰서 조절 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트레이드 시장에 임기영의 이름이 자주 언급됐었다. 그만큼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마인드 컨트롤도 많이 배웠다.

임기영은 “처음에는 크게 신경 안 썼다. 그런데 타팀 선수들이 만나면 얘기를 많이 했다. 조금 신경 쓰이기는 했는데 그 뒤로는 신경을 안 썼다. 승운이 안 따라준다는 이야기도 나중에는 뭐라도 1등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다”며 “오히려 꾸준하게 하지 못한 게 아쉽다. 승 욕심은 크게 없다. 그냥 던질 때 꾸준하게 던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올 시즌 임기영은 평균자책점과 이닝을 주목하고 있다.

임기영은 “꾸준함이 아쉽지만 작년에 그래도 평균자책점 많이 낮아졌다. 올해는 더 낮추고 싶은 욕심이 난다. 이닝도 작년보다 더 늘리고 싶다. 잘 던지다가 확 무너져서 평균자책점이 확 오르고 이런 게 많았다. 그래서 지금 피칭할 때부터 더 집중해서 하고 있고 포수들이랑 이야기 많이 하고 있다”며 “일단 팀 성적이 먼저 나아 한다. 팀 기록이 좋다면 개인 기록도 따라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작년에 좋았던 것 생각하면서 잘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KIA 타이거즈 임기영이 쾌조의 컨디션으로 애리조나 캠프에서 선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볼펜 피칭을 하는 모습.

네덜란드 대표 버나디나 “KIA, 올 시즌에는 우승해야죠”

“양현종·나성범·이의리 등
한국 선수들 만나고 싶어”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엔 KBO리그에서 뛰었던 다양한 외국인 선수들이 출전한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 ‘역수출’된 메릴 켈리(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미국)를 비롯해 두산 베어스 출신 로버트 스타크(이스라엘), 한화 이글스 출신 워릭 서폴드(호주) 등이 조국의 유니폼을 입고 나선다.

네덜란드 대표팀의 외야수 로저 버나디나도 KBO리그 팬들에게 익숙한 선수다.

버나디나는 2017년과 2018년 KIA 타이거즈에서 두 시즌 동안 270경기에서 47홈런, 64도루를 올리며 맹활약했다.

2017년엔 KIA의 통합 우승을 이끌며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기도 했다.

그는 한국을 떠난 뒤 멕시코, 네덜란드, 베네수엘라 등 다양한 리그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갔고, 2023 WBC 네덜란드 대표팀에 당당히 승선했다.

버나디나는 한국을 떠난 뒤 5년 만에 지구 반대편에서 한국 선수들과 다시 만났다.



WBC에 네덜란드 대표팀으로 출전하는 로저 버나디나가 22일 한화 이글스와 연습경기를 마친 뒤 한국 취재진과 인터뷰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22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 스킵스 테일 솔트리버 필즈 옛 토키 스틱에서 열린 KBO리그 한화 이글스와 연습경기에서 중견수로 선발 출전했다.

경기 후 한국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에 밝은 표

정으로 응한 버나디나는 “오랜만에 한국 선수들과 경기를 해 기분이 좋다”며 “한국에서 선수 생활을 할 때 많은 분께 도움을 받았다. 인연을 맺었던 한국 선수들이 무척 보고 싶다”고 했다.

이어 “열정적으로 응원했던 한국 팬들도 무척 그립다. 많은 나라에서 야구를 했지만, 한국 팬들이 최고인 것 같다”며 웃었다.

버나디나는 WBC에서 한국 대표팀과 만남을 기대한다.

그는 “이번 WBC엔 (함께 뛰었던) 양현종을 비롯해 나성범, 이의리(이상 KIA)가 출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승 등 높은 라운드에서 한국 대표팀과 만나고 싶다”고 밝혔다.

전정팀 KIA 응원도 잊지 않았다.

버나디나는 “소크라테스 브리토가 지난 시즌부터 팀을 잘 이끄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고의 외국인 선수와 함께하는 만큼 2023시즌에 우승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네덜란드는 쿠바, 대만, 이탈리아, 파나마와 2023 WBC 본선 1라운드 A조에 속해있다. A조 상위 2위 안의 성적을 거두면 한국이 속한 B조 상위 2개 팀과 일본 도쿄돔에서 8강전 단판 승부를 펼친다. 한국과 네덜란드는 8강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다. 네덜란드는 이를 대비하기 위해 애리조나 현지에서 KBO리그 팀들과 총 5차례 연습경기를 치르고 있다.

/연합뉴스



김석환 등 KIA 선수들이 스프링캠프가 진행되고 있는 애리조나 투싼 키노 스포츠 콤플렉스에서 야간 훈련을 하고 있다.

KIA 시즌 준비 밤낮이 없다

오전에 집중 훈련·오후엔 웨이트
야간 훈련에도 경기장 ‘복적복적’

‘호랑이 군단’의 2023시즌 준비에는 밤낮이 없다.

KIA 타이거즈는 미국 애리조나 투싼 키노 스포츠 콤플렉스에 캠프를 차리고 새 시즌을 위한 담금질을 하고 있다.

실전에 앞서 KIA는 오전에 집중적으로 훈련을 전개했다. 점심 이후에는 그라운드 훈련이 종료되면서, 엑스트라조가 떠나는 오후 2시 정도가 되면 경기장이 텅 비었다.

겉으로 보기에 훈련량이 많아 보이지는 않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정은 다르다.

오후 웨이트로 몸을 키운 선수들은 저녁 훈련도 잊지 않았다.

KIA는 박찬호를 기점으로 고참들로 구성된 A조와 신예 B조로 나눠 야간 훈련을 진행했다.

격일로 조를 나눠 야간 훈련이 진행됐지만 늘 예정된 인원을 넘어 경기장이 복적 복적 거렸다. 덕분에

에 공을 하나라도 더 치기 위해 선수들이 줄을 서서 대기하기도 했다.

타격 훈련만 진행된 것은 아니다. 주간 훈련 때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기 위해 방망이를 든 선수들 사이에서 김도영은 수비를 더하기 위해 글러브를 챙겨 들고 나오기도 했다.

‘이적생’ 주효상은 “해야 한다. 야구 잘하기 위해서 해야 한다”고 ‘개근생’을 자처했고, 홍중표도 “몰래 왔다. 야구 열심히 하려고 한다”고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외국인 선수도 예외는 아니었다. 소크라테스는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훈련’이라며 야간 스윙을 했다.

예외 없는 훈련에도 소크라테스는 밝은 표정으로 훈련에 임했고 ‘홈런 내기’도 하면서 동료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기도 했다. 내기에서 진 소크라테스는 동료들에게 커피도 대접했다.

경기장만 야간 훈련의 무대가 되는 것은 아니다. KIA 관계자는 “숙소 주차장에서 방망이를 휘두르는 선수들을 자주 볼 수 있다”며 밤낮을 잊은 선수들의 훈련 열기를 전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전인지 “커리어 그랜드슬램 올해는 꼭 달성하고 싶어요”

LPGA 혼다 타이랜드 출전
셰브론·AIG 트로피에 욕심

전인지(29)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023시즌 첫 출전을 앞두고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향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전인지는 23일 태국 춘부리에서 개막하는 LPGA 투어 혼다 타이랜드(총상금 170만 달러)에 출전한다.

이 대회는 LPGA 투어 2023시즌 두 번째 대회지만 전인지는 1월 개막전에 불참해 태국 대회를 통해 2023시즌을 시작한다.

전인지는 대회 개막을 앞두고 22일 인터뷰를 통해 “더운 나라에서 시즌을 시작하게 됐는데 물도 많이 마시고, 날씨에 잘 적응해야겠다”며 “시즌 첫 대회인 만큼 좋은 성적을 내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해 메이저 대회인 KPMG 여자 PGA 챔피



전인지

언임을 제패한 전인지는 5대 메이저 가운데 3개 대회에서 정상에 올랐다.

2015년 US오픈, 2016년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도 우승한 전인지는 셰브론 챔피언십과 AIG 여자오픈 가운데 한 대회 우승 트로피까지 수집하면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한다.

전인지는 “겨울에 한국에 있으면서 많은 분께서 그랜드슬램을 응원해주신다고 느꼈다”며 “저도 욕심이 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 말에 조금 더 책임질 수 있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대회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동계훈련을 하면서도 목표가 뚜렷하게 있다 보니 도움이 되기도 하고, 부담이 느껴지기도 했다”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면 저나 팬들이 원하는 결과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효주(28) 역시 “겨울에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이번 시즌도 스스로 기대하고 시작하는 것 같다”고 2023시즌을 앞둔 소감을 전했다.

지난해 4월 롯데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김효주는 “올해는 2승까지 욕심을 내보고 싶다”며 “기록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서 우승만 목표로 두고 준비했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연합뉴스